

논쟁과 토론의 아레나, 스웨덴 국립건축·디자인센터 ArkDes

김종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GLOBAL THINKTANK

아카이브 박물관을 통한 사회적 소통

스웨덴 국립건축·디자인센터(ArkDes)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하고 있다. ArkDes는 약 19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어엿한 박물관이다. 1950년대부터 국립 스웨덴 건축가협회(Svenska Arkitekters Riksförbundet)가 생산하기 시작한 사진 아카이브는 1962년에 협회가 건립한 건축박물관(Arkitekturmuseet)으로 이관되었고, 이것이 박물관의 시초이다. 당시 협회가 만든 사진 아카이브는 현대건축에 대한 공공과의 소통 매체였다. 소통이라는 과업은 박물관으로 아카이브가 옮겨질 때 함께 이관되었으며, 1978년 국립 박물관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역할은 유효하다. 현재 ArkDes의 역할은 스웨덴 문화부(Kulturdepartementet)에서 관리하고 있다. 부처 훈령(Förordning)으로서 정해진 ArkDes의 과업과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ArkDes 소장품 중 1950년대 사진 아카이브

출처: <https://digitalmuseum.se/>

* ArkDes 홈페이지. historia. <https://arkdes.se/om-arkdes/>

** Ministry of Culture. (2013.2.28.) Förordning (2013:71), med instruktion för Statens centrum för arkitektur och design. 총 12조로 구성된 내용을 요약

“ArkDes는 아카이브를 수집, 전시하는 고전적인 박물관 기능 외에도 미래의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논쟁과 토론의 아레나를 제공한다.”

- ① 건축과 디자인을 위한 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식 강화와 관심 증진
- ② 건축 형태와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전시, 교육, 토론 활동의 운영과 지원
- ③ 국가·지역 수준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당국과 박물관, 각 행위자들과 협력
- ④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대한 지식 기여와 건축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협력 기반 구축
- ⑤ 컬렉션의 지속 수집과 관리, 일반인의 이용 보장
- ⑥ 국제 문화 교류 및 협력, 활동의 보고, 현대 미술관과의 협력 등

ArkDes의 다양한 역할은 유물과 아카이브를 수집·전시하는 고전적인 박물관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ArkDes의 컬렉션 중 소장품의 연대가 파악된 16만 4,679점의 약 98%(16만 1,928점)가 20세기에 생산된 자료라는 점에 있다. 20세기에 생산된 자료는 그 대상(Museum Item)과 관련된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아이템은 온전히 역사적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역사가와 박물관 학예사의 시선으로만 가치를 가늠할 수 없다.

현대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은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가가 기술한 역사와 동시대 사람들에게서 수집된 낱것의 기억을 대등한 높이에서 바라보는 틀*을 만든다. ArkDes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현대 박물관이 처한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기관은 건축과 디자인이라는 박물관 주제 속에서 아카이브를 해석하는 시각의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전시 교육 토론은 하나의 매체로서 작용하고, 곧 건축에 대한 지식과 관심 증진(Kunskapen om och främja intresset för arkitekturens)**으로 이어지는 전략 속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레나로서의 ArkDes 싱크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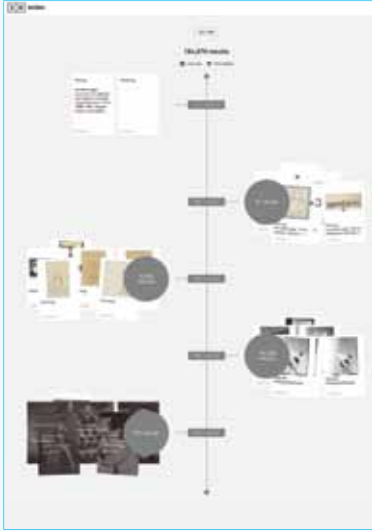
ArkDes는 박물관의 기능 외에도 미래의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논쟁과 토론의 아레나를 제공하고 있다. 아레나(Arena)는 로마의 원형극장(Roman amphitheatres)에서 시작된 건축 용어이다. 당시 극장은 검투사들의 싸움, 체육 경기, 각종 공연을 로마 시민 대부분이 모여 관람하던 장소였다. Arena는 라틴어 Hanena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어의 arena를 비롯해 이탈리아어의 rena와 프랑스의 arène 등은 Arena와 유사한 용어이고 모두 모래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어로는 ‘각축장’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ArkDes가 생각하는 기관의 역할은 ‘모래가 날릴 정도의 논쟁과 토론이 오가는 공공의 장소’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ArkDes는 창의성만으로 미래의 도시를 만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집단의 소통을 통해 미래에 닥쳐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민사회에 요구하고 있

* 역사가에 의해 기술된 역사를 확대하는 의미로서, 공공 역사(Public History)라는 학문적 틀이 등장

** Förordning (2013:71)의 Uppgifter 1§ 중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word/arena>



ArkDes 시대별 아카이브 타임라인

출처: <https://digitaltmuseum.se/search/?sv=timeline&aq=owner%3F%3A%22S-ARK%22>

다. ArkDes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우리가 살고 머무는 장소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에 한정되었던 기관의 책무 범위를 2009년부터 도시 개발, 조정, 제품 디자인, 디지털 기반 디자인 등 디자인이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ArkDes는 'ArkDes 싱크탱크(Think Tank)'를 하나의 창조적 허브로 삼아 건축과 디자인에 대하여 연구·협력사업·분석·모니터링하고 스웨덴의 공공정책을 지원한다. 싱크탱크는 디자인의 질적 향상이 곧 더 지속가능하고, 더 민주적이며, 더 건강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회로 연결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은 UN의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맥락을 함께한다.**

ArkDes는 싱크탱크를 통해 공공환경 설계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 보안, 아동 문제, 통합 디자인, 시민 참여 이슈에 대하여 관계 당국과 도시 협의회와 소통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ArkDes는 정책의 영향을 추적하고 평가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국립 주택, 건축 및 기획위원회, 예술위원회, 유산위원회와의 협력사업 ▲지역 노드(regionala moderna) 조정 업무를 통한 건축의 형태와 디자인에 대한 조정 ▲지속가능한 도시(hållbar stad)를 위한 위원회의 소통 웹사이트(<https://www.hallbarstad.se/>) 운영 ▲스웨덴 건축가들이 타국의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Architecture Design Exchange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 전파를 위한 연중 세미나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ArkDes는 오늘날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을 아레나로 모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문화부가 공개한 '2020년도 ArkDes 예산 사용 승인에 대한 문서'*****는 기관이 공공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예산 승인의 첫째 조항은 관람객과 접근성에 대한 보고 부분으로, 골자는 '젊은 층과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다음 항목은 스웨덴의 '박물관법' 제11조*****에 따라 '아카이브를 포함한 박물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문화의 긍정적 효과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ArkDes의 기관 운영 방식은 박물관이라는 공공의 건축에 더해짐으로써 건축과 디자인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진보한 형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 ArkDes 홈페이지. What is design?, ArkDes. <https://arkdes.se/en/about-us/>

** ArkDes 홈페이지. Think Tank. <https://arkdes.se/en/arkdes-think-tank/>

*** ArkDes(2019a, p.36)

**** ArkDes(2019a, pp.37-39) 번역 및 요약

***** Kulturdepartementet. (2012.12.17.) Regleringsbrev för budgetåret 2020 avseende Statens centrum för arkitektur och design.

***** Kulturdepartementet. (2017.6.8.) Museilag(2017:563) Samverkan och spridning i hela landet 11 §.

“ArkDes는
싱크탱크를 통해
공공환경
설계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와
협력하고 있다.”

건축 담론 형성을 위한 전시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전시는 문화재나 유명한 작가의 그림으로 채우는 전시와 다르다. 대부분의 역사박물관과 미술관은 관람객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을 확장하고 전시품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과 송고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 집중한다. 그러나 건축·도시 테마의 박물관 전시에서 원본을 축소하거나 재현한 모형,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된 스케치나 공문서와 같은 부산물이 전시품의 유형으로 제한된다. ArkDes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전시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소장품을 수집하는 박물관으로서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전시를 위한 장기간의 조사와 연구에 적극적이다. 마치 긴 시간에 걸친 탐사보도처럼 그들에게 전시는 일종의 ‘매체(Medium)’이고 그래서 더욱 논쟁적이다.

2018년 전시장에 올린 ‘Public Luxury’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건축과 디자인의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스웨덴 축구스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Zlatan Ibrahimovic)의 집이 갖는 도시 속의 상징성, 핫도그 키오스크 디자인 변경에 반대하는 시민 투쟁 등 스웨덴 각지에서 벌어진 27개의 사례를 근거로 ‘공공의 사치’라는 역설적 이슈가 어떤 논쟁과 행위를 이끌어 냈는지를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ArkDes는 철학자 상탈 무페(Chantal Mouffe)를 인용하며 “가장 민주적인 장소는 적대자를 파괴하는 곳이 아니라 적법한 존재로 간주하는 곳”이라는 담론을 전시를 통해 시민사회에 던졌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Build furniture for the city!’와 ‘Design the City!’에서는 도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민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2019년 열린 ‘Cruising Pavilion: Arkitektur, gaysex och cruisingkultur’는 동성애자와 건축에 대한 전시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파리에서 시작하여 2018년 16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2019년 뉴욕 기획전을 거쳐** ArkDes와의 협업을 통해 기획되었다. ArkDes 기획전시에서는 도시의 건축과 섹슈얼리티의 관계를 집중하여 다루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성남성 간 관계가 일어나는 도시의 여러 면을 탐구하였다. 큐레이터 팀은 전시를 통해 이 관계에서 부재하는 건축담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ArkDes의 여러 작업에서 ‘담론’이라는 메시지는 쉽게 발견된다. ArkDes 상설전시 개편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행된 스웨덴 건축역사에 대한 논문 공모에서 그들은 ‘건축 담론에서 전시라는 매체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ArkDes의 부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이수지 씨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시라는 것은 한 전시가 만들어 내는 국내외적인 담론 플랫폼 전체”라고 말했다.*****

건축 담론과 전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ArkDes의 전략에는 2017년부터 경영부분 디렉터를 맡고 있는 키어런 롱(Kieran Long)의 영향력도 작용했다. 그는 세계적 건축 매거진인 <Architects' Journal>과 <Architectural

* ArkDes(2018a, pp.3-6, p.49)

** Cruising Pavilion. <https://cruisingpavilion.com/>

*** ArkDes(201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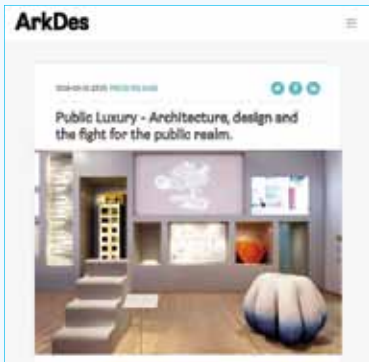
**** ArkDes(2018b)

***** 박세미(2020)



Cruising Pavilion 전시 관련 기사

출처: <https://pressroom.arkdes.se/posts/pressreleases/from-venice-and-new-york-city-exhibition-expl-1>



Public Luxury 전시 관련 기사

출처: <https://pressroom.arkdes.se/posts/pressreleases/public-luxury---architecture-design-and-the-1>

Review>의 편집장을 지낸 것은 물론 영국의 무가지 <London Evening Standard>의 건축 비평가, 런던 V&A 뮤지엄의 큐레이터, BBC의 'Restoration Home' 프로그램 진행자를 맡은 이력이 있다. 건축과 관련된 이론·비평·전시와 대중매체를 통해 이름을 높이고 광폭적 행보를 보인 그는 V&A 시절에 이미 박물관을 '담론의 장소(A place of discourse)'나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시장'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20년 6월 열린, ArkDes의 신규 기획전시 'Virtual Design Festival'에 대한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키어런 룬은 스웨덴에서 ArkDes가 차지하는 입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는 스웨덴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높은 정치적 감수성, 젠더 장애인에 대한 논쟁이 무색할 만큼 균형 잡힌 시각도 긍정적으로 여겼으며, 또한 정부가 건축이 가져야 할 사회적 목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과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스웨덴 건축의 한 단면이라 이야기하였다.** 그는 ArkDes의 2020년 리포트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의 필요와 희망이 모든 일의 시작이어야 하며, 지역 환경의 변화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대목에서 ArkDes가 생각하는 건축과 도시는 곧 정치와 사회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나가며

ArkDes의 기관 소개 웹사이트에는 스웨덴 정부가 ArkDes에 제시한 목표점도 함께 적혀 있다. 이 중 2018년 2월 공포된 '건축, 형태 및 디자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국가 목표'****는 단연 눈에 띈다. ArkDes의 디렉터인 키어런 룬은 앞서 언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률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건축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ArkDes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과업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 문화부·환경부·산업통상부가 함께 발표한 이 정책은 건축과 디자인이 지속가능성, 평등함, 덜 분리된 사회(mindre segregerat samhälle)에 기여할 것을 요점으로 한다. 정책의 전략으로서 지속가능성과 질(hållbarhet och kvalitet)은 단기적인 경제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 공공 부문의 모범적 행동, 미적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개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ArkDes의 시작은 현대 건축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진 아카이브를 모으는 데 있었지만, 그 유지(遺旨)는 점차 가다듬어지고 정교해져 70년이 지난 오늘날 건축과 디자인 정책의 소통 채널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2025년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6년 건축공간연구원이 수행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주한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에서 박물관 아카이브 중 한 컬렉션으로 '주요

* Frearson(2012)

** Dezeen(2020)

*** Long(2020, p.6)

**** Kulturdepartementet, Miljödepartementet, Näringsdepartementet. (2018.2.22.) Nytt nationellt mål för arkitektur-, form- och designpolitiken(Prop. 2017/18:110).

“ArkDes는
시민과 현대 건축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사진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유지(遺旨)는
점차 가다듬어지고
정교해져 건축과
디자인 정책의
소통 채널로 작동한다.”

도시건축 유형별 정책결정 기록자료’가 제시되었다. 박물관 운영에서는 이들 아카이브를 토대로 정책 및 국책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정책을 전시한다는 데에서 과거 공보관(公報館)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고, 그 무용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ArkDes가 모래먼지 날리는 아레나, 담론 형성을 위한 플랫폼을 자처하는 이유는 ‘건축·도시의 이슈가 더 이상 아름다움이나 창조성에 의존하여 소수가 독점하는 영역이 되서는 안 된다’는 스웨덴 국민의 요구에 있다. 한국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개관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장으로서 박물관 역할에 대해 우리도 고민할 때이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p.61, p.126)

참고문헌

-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2 박세미. (2020). 도시는 과연 영원한가?: <키루나 포에버>. 공간, 637호.
- 3 ArkDes 홈페이지(<https://arkdes.se/en/>)
- 4 ArkDes. (2018a). Public Luxury.
- 5 ArkDes. (2018b). Call for Papers - Symposium on Architectural History at ArkDes.
- 6 ArkDes. (2019a). Årsredovisning 2019. Arkitektur- och designcentrum Skeppsholmen.
- 7 ArkDes. (2019b). Cruising Pavilion Press Release.
- 8 Dezeen. (2020). Live conversation with ArkDes director Kieran Long as part of Virtual Design Festival. <https://youtu.be/XVB1T0E8rVw>
- 9 Frearson, A. (2012). Kieran Long appointed senior curator of architecture, design and digital at V&A. Dezeen. 11월 8일 기사. <https://www.dezeen.com/2012/11/08/kieran-long-appointed-curator-at-va/>
- 10 Long, K. (2020). Förord. *Thinktank*. Arkdes.
- 11 Ministry of Culture. (2013.2.28.) Forordning(2013:71) med instruktion for Statens centrum for arkitektur och design.
- 12 Kulturdepartementet. (2012.12.17.) Regleringsbrev for budgetaret 2020 avseende Statens centrum for arkitektur och design.
- 13 Kulturdepartementet. (2017.6.8.) Museilag(2017:563) Samverkan och spridning i hela landet 11 §.